

# 성인병 발생의 실태

## 노인층 인구의 증가로 성인병은 더욱 증가

### 증가일로에 있는 성인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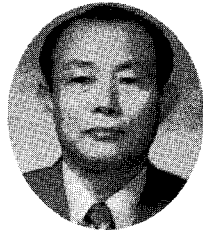
문명이 발달하고 급속히 공업화가 되면서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질병의 양상도 크게 변모하여 이전에 많았던 영양실조, 전염병, 기생충병과 같은 감염성질환에 의한 이환율이나 사망률은 매우 급속히 감소되고 있으며, 세계각국의 평균 수명도 금세기초(1900년)의 대략 40세이하에서 최근(1995년)에는 약 75세까지 정말 놀랄 정도로 연장되었다.

가장 통계가 정확하다는 미국의 경우를 보면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1970년에는 全人口의 약 10%에 달했었지만 2000년경에는 대략 18~20%에 이를 것으로 보고있다.

앞으로 확실히 인구는 정체되고 노인층 인구가 놀랄 정도로 증가하여 노인층에 많은 成人病들이 더욱 증가하리라는 것은 명약관화 하다.

### 중년기 이후에 많은 성인병

우리나라에서도 1995년 현재 65세이상의 노령인구가 전인구의 대략 7~9%를 차지하는



유 동 준

경희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것으로 최근 통계청이나 보건사회연구원 등의 조사자료에 의하여 밝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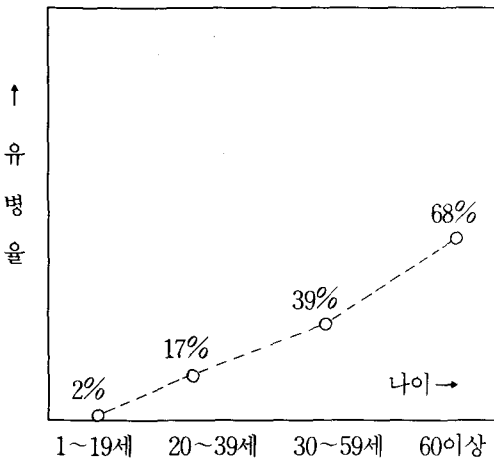
따라서 우리나라도 앞으로 모 든 양상이 歐美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어려운 문제에 부딪 칠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 우리나라에선 전국에 걸친 정확한 死因別 통계나 특히 성 인병에 관한 확실한 통계는 정리

되지 않았지만, 통계청을 위시하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의 조사보고와 발표된 1992년도 1993년도 및 1994년도 주요 사망원인이 나 일부 보고된 사인별 통계와 주요 대학·종합병원들의 院報 자료들과 보건복지부를 위 시한 의료보험조합연합회 등의 상병조사보고 등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면 최근 전체적으로 입원환자의 약 55~60%는 40세 이상의 中·老年層의 성인병환자들이었는데, 질환별로는 뇌졸중, 고혈압, 심장병, 동맥경화성 제질환, 만성신장병, 만성위장병, 만성간장병, 암, 당뇨병, 비만증(제반 합병증들과 관련됨), 만성호흡기질환, 정신장애, 신경계

## 입원환자의 약 55~60%가 40세 이상의 중·노년층으로 성인병이 대부분의 원인이다.

질환, 부정수소증후군 등의 만성·퇴행성 질환인 소위 「성인병」이 대부분이었다.



〈그림 1〉 순환기계통 성인병의 유병율(연령별)

고혈압, 뇌졸중, 동맥경화증, 심장병, 당뇨병 등 순환기계통의 5대 성인병의 연령별 유병율은 나이에 따라 급증한다.

또한 일반 급성질환을 포함한 총이환율을 보면, 40세이하에선 대략 17%이나 40세 이후부터 급격히 이후부터 급격히 증가하여 약 35%, 60세이상에서는 약 50~55%로서 확실히 중년기 이후에서 기울이었다.

특히 만성적 활동제한, 불구무능력상태, 기능이상·장애 등을 포함한 각종 만성질환의 유병율이 중년기 이후의 노년층에 확실히 높았다. 이들 만성·퇴행성질환중 특히 고혈압·뇌졸중, 동맥경화증, 심장병, 당뇨병(만성신장병 포함) 등의 대표적인 순환

기계통의 5대 성인병의 有病率을 연령별로 보면 19세까지는 약 2%, 20~39세까지는 약 17%, 40~59세까진 약 39%, 60세이상에서는 약 68%의 유병율로서 실로 加齡과 老化와 함께 성인병이 급증함을 알 수 있다 〈그림1 참조〉.

### 주요사인(死因)이 되는 성인병

앞에서 말했지만, 문명이 발달하고 급속히 공업화가 되면서 생활이 풍요해짐에 따라 질병의 양상은 변모되어 이제는 만성·퇴행성질환, 즉 성인병의 유병율과 이로 인한 사망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 현대인의 주요 사망원인이 되고 있다.

이를 근거있는 자료를 통하여 입증할 수 있도록, 대표적인 선진국인 美國과 우리나라와 상당히 여러가지로 비슷한 日本의 경우를 우리나라의 통계자료와 비교해 보면 확실히 이제는 中進國이상의 나라에서는 현대인의 질병 및 사망의 양상이 거의 비슷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1 참조〉.

1992년도의 미국의 주요 사망원인은 ① 순환기질환 ② 암 ③ 불의의 사고 ④ 자동차 교통사고 ⑤ 당뇨병 ⑥ 감염성질환 ⑦ 자살 ⑧ 만성간장병 ⑨ 만성호흡기질환 ⑩ 병명미상 및 기타 ⑪ 노쇠 등의 순위로서

특집/우리나라 성인병을 진단한다

<표 1> 국가별 주요사인의 사망률과 순위

(단위 : 인구 십만명당)

사 망 원 인(ICD)	한국 : 1992		미국 : 1991		일본 : 1991	
	순위	사망률	순위	사망률	순위	사망률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001-139)	7	13.8	6	12.4	9	10.4
악성 신생물(암)(140-208)	2	110.9	2	200.3	2	182.5
당뇨병(250)	8	13.5	5	18.8	10	7.9
순환기계의 질환(390-459)	1	156.4	1	377.1	1	247.3
만성 및 상세불명의 기관지염 폐기종 및 천식(490-493)	10	10.2	9	9.7	7	12.4
만성 간장병 및 경변증(571)	6	28.6	8	10.9	6	13.8
정신병기제가 없는 노쇠(797)	4	46.6	11	0.5	4	18.8
기타 증상, 징후 및 불명확한 병태(780-799)	9	12.7	10	10.4	11	5.7
불의의 사고 및 부작용(E800-949)	3	69.1	3	38.7	3	27.2
자동차 교통사고(E810-825)	5	32.7	4	19.0	8	11.8
자살 및 자상(E950-959)	11	9.0	7	12.4	5	1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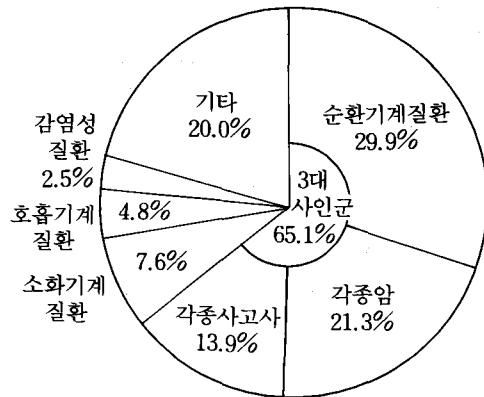
死因의 거의가 성인병과 사고, 일본의 경우 주요 사인은 ① 순환기질환 ② 암 ③ 불의의 사고 ④ 노쇠 ⑤ 자살 ⑥ 만성간장병 ⑦ 만성호흡기질환 ⑧ 자동차 교통사고 ⑨ 감염성질환 ⑩ 당뇨병 ⑪ 병명미상 및 기타 등의 순위로서 역시 성인병과 사고가 주요사망 원인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1992년도에 통계청에서 발표한 주요사인을 보면, 이미 앞서서도 이와 관련하여 그 내용을 말한바 있지만, ① 순환기질환 ② 암 ③ 불의의 사고 ④ 노쇠 ⑤ 자동차 교통사고 ⑥ 만성간장병 ⑦ 감염성질환 ⑧ 당뇨병 ⑨ 병명미상 및 기타 ⑩ 만성호흡기질환 ⑪ 자살 등의 순위로 역시 성인병과 사고가 주류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1 참조>.

또 1992년 및 1993년도 주요 사인 분석에 뒤이어 얼마전에 통계청에서 1994년도 사망 신고 예 239,523건을 대상으로 조사분석하여 公式발표한 바에 의하면, 사인분류가 가능한 230,677건중 순환기질환의 29.9%로

가장 많고 癌으로 인한 사망이 21.3%, 각종 사고가 13.9%로 이른바 3대 사인이 전체사망의 65.1%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2. 참조>

따라서 국가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사망원인의 1위는 한국, 미국, 일본 모두 순환기질환이고, 2위는 모두 악성신생물(암)이며, 3위는 역시 세 나라가 모두 불의의 사고임을 알 수 있다.



<그림 2> 1994년도 사망원인별 사인구조

## 순환기계 질환, 악성신생물(각종 암질환), 사고가 1·2·3위를 고수하면서 3대 주요사인이 되고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사망양상의 선진국의 그것과 매우 비슷함을 뜻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미국과 일본에 비해 특이하게 높은 사망율을 보이는 것은 만성간장병과 자동차 교통사고 정도 뿐이다.

### 년대별 주요사인의 변천

지난 날의 우리나라에서의 주요 사망원인들을 돌이켜 보면, 1950년대에는 결핵을 수위로, 1960년대에는 병명미상(진단불명)과 호흡기계질환(결핵포함)이 상위권을, 1970년대부터 뇌혈관질환과 악성신생물(암)이 수위권으로 급격히 부상하고, 1980년대에는 순환기질환이 수위를 완전히 차지하게 되었고, 1990년 들어와서 이제는 분명하게 3대 주요사인이 되는 순환기계질환(뇌혈관질환, 심장병, 고혈압성 제질환), 악성신생물(각종 암질환), 사고(손상, 중독 등)가 1, 2, 3위를

고수하면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표 2 및 그림 2 참조).

이러한 변천의 결과는 1950년대나 1960년대, 다시 말해서 결핵같은 전염성질환이나 소화기계질환을 위시한 급성전염(감염)성 질환 등이 주요사인을 차지하던 양상과는 매우 판이한 양태를 보여주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1960년대 이전의 전염성질환과 소화기계질환 등이 사인의 수위를 차지하던 양상이 역전되어 이제는 확실히 비전염성의 만성·퇴행성 질환이 소위 「成人病」(순환기 질환과 암)과 사고가 수위권을 차지하는 선진국형의 사망양상으로 변모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질병의 양태 및 사망원인의 변화는 변천하는 새로운 시대에 알맞은 적절한 질병관리와 적극적인 건강증진대책 그리고 수준높은 복지시책이 강구되어야 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DAK

〈표 2〉 년도별 주요 사인구조

(단위 : 각, %)

주요사인	1985		1988		1991		1994	
	사망자수	구성비	사망자수	구성비	사망자수	구성비	사망자수	구성비
총사망자수	200,062	100.0	190,194	100.0	199,673	100.0	230,677	100.0
감염성질환	8,161	4.1	6,067	3.2	5,244	2.6	5,693	2.5
각종암	30,272	15.1	34,636	18.2	38,351	19.2	49,032	21.3
순환기계질환	63,629	31.8	57,031	30.0	57,260	28.7	68,907	29.9
호흡기계질환	9,267	4.6	7,882	4.1	7,796	3.9	11,192	4.8
소화기계질환	18,016	9.0	15,946	8.4	15,514	7.8	17,589	7.6
각종사고사	23,209	11.6	26,172	13.8	31,261	15.7	32,016	13.9
기타	47,508	23.8	42,460	22.3	44,247	22.2	46,248	20.0